

EUNSEOK CHURCH MATHETES

지진과 태풍 속에서

신윤식

산다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고
당연한 것도 아님을
알라는 듯
땅을 흔드시더니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주인인 듯
살아가는 우리들
정신 차리라는 것일까
이제는 물로써
땅을 덮어 버리신다.
노아의 홍수를
잊지 말라는 것처럼

쏟아 붓는 물줄기에
강은 넘쳐흐르고
성난 너를 파도가
방파제를 넘어 드니
평화롭던 세상은
순식간에 아우성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땅이 흔들릴 때는
불안감에 잠 못 이루고
물이 덮칠 때는
한숨 쉬며 낙심 하느라
잠자는 영혼을 깨우시는
은혜를 잊어버린다.

이 땅은
죽음이라는 것을
생명은 하늘에 있음을
땅이 흔들리고
물이 넘치는 일을
몇 번이나 겪어야
알게 되는 것일까.

제24권

41

2016.10.9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나라(사55:8)

은 석 교 회

대구광역시 북구 구리로 38길 7-12

☎ 421-9049 010-3323-9049

<http://www.onlycross.net>

이상으로 본 성전

겔 40:1-4

신자는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보게 됨으로써 감사하게 되며 그 사실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이 말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아멘'으로 반응합니다. 아마 구원, 감사, 전하는 자, 이러한 단어만 생각하면서 말의 의미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이 홀로 이루셨음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가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본다는 것은 구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무능할 수밖에 없는 자기 존재를 인식하며 구원이라는 기적의 사건을 이루신 하나님의 권능을 감사하며 높이게 됨을 의미하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행 1:8)는 말씀처럼 자신이 알게 되고 보게 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신자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한다'는 것은 흔히 말하고 알고 있는 전도의 의미와는 다릅니다. 단지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기 위해 전하는 차원의 전도가 아닙니다. 교회를 출입하여 교회인이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 아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기독교인이 자신에게 관심을 두고 자기를 위해 신을 찾고 부르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사건, 그 역사 하심을 성경이 보여준 그대로 전함으로써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은혜와 사랑과 자비하심에 감사하며 찬송하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백성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는 차원에서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때 많은 사람들의 반발을 사게 됩니다. 반발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인간은 뭐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나?'가 반발의 이유입니다.

저는 인간이 해야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보게 됨으로써 구원으로 감사하며 구원이라는 기적의 사건으로 증거 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하심을 전하고 증거 하는 것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새 영을 주심으로 하게 되는 것이지 인간의 본래 속성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 증거가 '인간이 해야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나?'라며 반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해야 할 일에 중점을 두게 되면 자연히 자신이 한 일을 드러내고 자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도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으로 포장을 하겠지만 그 속은 인간의 공로와 자랑이 담겨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함이나 성품 등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자신

의 의를 질러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성경의 중심 내용이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이루심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어렵다기 보다는 아예 불가능하다고 해야 합니다. 겔 36:26절의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지 않으면 안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그와 같은 내용을 접할 수 있습니다.

40-48장은 에스겔서의 마지막 부분으로 성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전의 구조와 규모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성전이 무너지고 없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세우신 새 성전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우리가 사로잡힌 지 스물다섯째 해, 성이 함락된 후 열넷째 해 첫째 달 열째 날에 곧 그 날에 여호와와 그의 관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라고 말합니다.

에스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된지 25년째 해, 예루살렘 성이 함락 된지는 14년이 지났을 때 여호와께서 이상 중에 에스겔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셔서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거기에서 남으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읍 형상 같은 것은 성전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성전을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에스겔은 성전에서 모양이 낮 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사람에게서 **“인자야 내가 네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네 마음으로 생각할지이다 내가 이것을 네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

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 지이다” (4절)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것이 본문의 내용이고, 5절부터는 측량한 성전의 구조와 규모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에스겔이 본 낮같이 빛난 사람은 천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천사가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서 있고, 측량한 성전에 대해 언급한다는 것은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의미를 제시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성전을 측량한다는 것은 성전이 이미 완성되었음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다시 재건해야 할 성전의 모형이 아닌 하나님에 의해서 이미 완성된 성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이상 중에 성전을 보는 때가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후 14년이 남았다면 성전 또한 무너지고 없음을 뜻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에게는 성전이 없는 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전이 완성되어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여주신 성전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마음으로 생각하라고 하시면서, 본 것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라고 합니다. 이것으로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가 분명해 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성전을 본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이상 중에 보여주신 성전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성전을 보여주시고 본 것을 이스라엘에게 전하라고 하셨다면 하나님이 보여주심

으로 성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신자가 할 일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명확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본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봄으로써 구원에 속하게 된 신자가 할 일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대개의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말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냅니다. 신자의 할 일을 너무 약화 시키거나 축소시킨다고 생각하는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신자의 할 일은 마치 하나의 설계도로 건 축한 건물처럼 동일합니다. 봉사, 구제, 전도, 선교 등등 하나같이 이러한 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혹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성전에서 봉사, 구제, 전도, 선교와 같은 일들이 신자의 할 일로 드러난다면 당연히 그것을 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살펴보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성전은 그 같은 일들을 신자의 할 일로 증거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말에 사람들은 더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크게 반발하게 됩니다. 현대 기독교에서 신자가 실천해야 할 가장 중심적이며 중요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모두 부정하는 듯한 의미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계속 설교를 들어온 여러분도 쉽게 납득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봉사, 구제, 전도, 선교, 그 모든 것들이 신자가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이 신자가 해야 할 일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은 그 일을 하기 위해 얼마나 힘썼습니까? 솔직히 여러분의 모든 관심은 개인의 삶으로 집중되어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나 구제, 전도를 신자가 해야 할 일로 믿는다고 해도 전심으로 그 일에 온 마음을

집중하지 않을 것이고 또 특별히 열심히 행한다고 말할 만큼의 실천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행함을 부정하는 듯한 말을 들으면 심기가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것은 어떤 마음일까요?

성경이 신자의 할 일로 증거 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 말라거나 하면 안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을 행한 것으로 자신이 신자이고 신자답게 살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함락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되게 하신 이유가 지금의 한국교회가 신앙생활로 생각하는 것들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신가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신가를 알게 하기 위해 고통의 길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앙 중심이 성전이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들은 건물로 세워진 보이는 성전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었고 그 성전에서 제사하고 제물을 바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행하는 것으로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성전을 세우시고 제사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누구신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고 알아야 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율법대로 행하는 자기들의 실천으로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고 백성으로 살고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이스라엘이나 지금의 한국교회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보여주신 성전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성전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해방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하여 지은 2차 성전이나, 2차 성전이 무너진 후 헤롯이 지은 3차 성전도 예스겔이 이상 중에 본 성전과는 같지 않습니다.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이 땅에 성전으로 오신 그

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고, 성령이 오심으로 그리스도와와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 재할 교회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성전을 측량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져 완성된 성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에스겔 시대의 이스라엘에게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성전입니다.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서 생각한다면 완성된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단 한 치의 부족함이나 다른 점이 없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에스겔은 자신이 본 성전을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완성하신 성전이 있음을 전함으로써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성전은 성전이 아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성전은 부족함이나 모자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생각이나 뜻은 물론이고 인간의 열심, 헌신 또한 요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으로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에 대해 인간이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성전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됨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이 매일 반복됩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조금 부족하게 만드신 후에 '나머지는 너의 행함과 실천으로 채워서 내가 기뻐하는 인간이 되어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만족하지 않습니다.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간이 죄를 생각하면서 부족한 존재임을 생각하는 것이면 좋겠지만 타인의 행함과 실천을 비교하면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

니다. 결국 행함과 실천으로 자신의 부족을 채우려고 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사건에서 멀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성전을 보여주시는 의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을 찾아내서 고치라거나 벽돌이라고 한 장 에스겔 손으로 얹어서 열심과 정성을 보태라는 것이겠습니까? 아마 누구도 본문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참된 성전으로 보내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모든 일에는 우리가 고쳐야 하거나 보태야 할 것은 없다는 것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신앙을 위해서 열심과 정성이 있어야 한다는 말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이 무너진 것은 성전 신앙의 실패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성심을 다해서 율법을 실천하고 지키고자 했던 열심과 정성의 실패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본 것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본 것을 전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이며 무엇이 실패인가를 깨닫게 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성전에 담겨 있는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인간의 열심과 정성과 헌신 그 어떤 것도 용납되지 않고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만 용납된다면 결국 남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이 이상 중에 성전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했을 때 맺어지는 열매는 은혜입니다. 따라서 에스겔이 본 것을 다 이스라엘에게 전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존재하는 것이 이스라엘임을 증거 하라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인간의 열심과 정성은 지워져야 할 대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열심과 정성을 은혜로 포장해서 자기 자

량을 감추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했습니다' 는 말로 인위적인 겸손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은혜 앞에서 모든 것이 지워지고 죄만 드러나는 자기의 실상을 보게 된 신자라면 '나는 죄인일 뿐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린 그것을 스스로를 '죄인의 과수' 로 고백하는 바울에게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성전은 이스라엘의 실패를 보게 하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성전이 능력이 되어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공로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 성전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성전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공로와 의가 되심을 고백하고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것이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 같이 된다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 같이 된다

면 못할 일이 없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의 인간이 신앙을 명목으로 추구하는 세계입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불가능이 없는 세계를 신앙의 세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는 구절을 좋아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에 대해 만족과 감사가 있을까요? 있을 수 없습니다. 자신이 의도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에서 만족을 찾고 신앙을 찾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선악과를 먹은 인간으로 살아가는 죄의 세계일 뿐입니다.

에스겔이 성전을 보고자 해서 스스로 이상의 상태가 되어 이스라엘 땅으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그를 이끌어 이스라엘로 간 것입니다. 에스겔은 보게 하신 것을 보게 된 것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마음에 두게 된 것 역시 하나님의 이끄심입니다. 그 은혜만을 전하는 것이 신자입니다.

믿음과 평강

사 26:1-4

믿음 82강 9. 18일 설교

지난 시간에는 승리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믿음이기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곧 세상을 이기는 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정작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승리에 공감되지 않고 실감할 수도 없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원하는 승리와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생명이 있기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아니라는 말씀이 기독교인이라는 신분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실감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가 있는 것이 곧 세상을 이기는 것이라는 말에는 아멘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의지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승리가 실감되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는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불안과 염려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이치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라면 모든 일에서 믿음이 염려와 불안을 극복하고 이김으로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정작 현실은 평강보다는 세

상과 동일하게 염려와 불안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평강이 없다고 생각되고 세상을 이긴다는 실감에서도 멀어지는 것입니다.

신자라면 누구나 평강을 원합니다. 자신의 형편이 주는 평강은 물론이고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처한다고 해도 마음만은 불안과 염려가 사라진 평강의 상태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런 이유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인해 심적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사람들이 원하는 심적 평강은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자신이 처한 환경에 따라 심적 상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처럼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태풍으로 인해 집이 침수되거나 농작물이 모두 망가졌을 때 자연히 그 마음은 분노, 낙심, 우울, 짜증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신자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이러한 마음들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과 성령을 오해한 사람들은 신자가 믿음이 있고 성령을 받았다면 분노, 낙심, 시기, 미움 이러한 본성을 이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로 인해 분노가 일어나거나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혹 자신이 성령 받지 못한 것은 아닌지,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며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평강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자의 품성에 대해서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성령 받은 신자라면 그에 합당한 품성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품성을 말하는지는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소위 훌륭한 인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품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믿음과 성령이 신자를 훌륭한 인격의 사람, 좋은 품성을 가진 사람으로 만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도덕과 윤

리를 믿음과 성령의 역사의 한 부분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의 왜곡된 생각일 뿐입니다. 이것이 신자가 유의해서 생각해야 할 부분입니다. 마귀의 유혹은 언제나 선을 가장하여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좋은 환경이 평강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환경에서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없이 사는 것이 평강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타인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문제들이 없다는 것일 뿐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환경에 있다 해도 결국 극복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죽음입니다. 따라서 세상에는 평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자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바벨론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고 빼앗겼습니다. 그나마 이스라엘이 심적으로 의지할 수 있었던 성전까지 무너지고 성전의 기물도 착취당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고 포로가 되는 비참한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심적 평강은 누가 봐도 기대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선지자는 주께서 심자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신다고 말합니다. 심자가 견고하면 주가 평강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심자가 견고하다는 것은 3절 뒤에서 말하는 것처럼 주를 신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스라엘이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잃어버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우리가 고통을 겪게 되었을 때를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

은 아닌가?’ ‘하나님께 벌 받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은 아닌가?’ 이런 혼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를 신뢰하지 못한 것이고 이것을 심지가 견고하지 못한 것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신자가 주를 신뢰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자신들을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신자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고 이것을 심지가 견고하다고 한 것입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과 함께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 왔습니다. 이 상황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였을까요? 단순히 ‘선지자니까 믿음이 좋을 것이다’ 라고 결론지을 수 없습니다.

겔 16:59절을 보면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언약을 배반함으로써 주어진 당연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깁니다. 때문에 자신이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이 말씀을 그대로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에스겔 선지자의 생각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렘 31:32절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스라엘이 언약을 깨뜨렸음을 말하면서 이스라엘이 처한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당연한 심판으로 받아들이니다. 결국 모든 문제는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된다 해도 하나님께 ‘왜’ 라는 반문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세상을 신뢰했으며 나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진다 해도 우리는 ‘왜’ 라고 반문할 수 없는 존재일 뿐인 것입니다.

따라서 심지가 견고하지 못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라는 생각에 붙들리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이 자신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지 못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환경으로 인한 평강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한 환경도 죽음과 함께 끝나는 것임을 생각한다면 분명 생명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생명과 무관한 것을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그것을 위해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습니까? 이것을 생각한다면 보이는 것에 매이고 좋은 환경을 생각하면서 평강을 꿈꾸는 것이야 말로 심지가 견고하지 못한 것이고 주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환경과 상관없이 평강이 없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세상은 저주에 잠겨진 땅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시각으로 세상을 보지 않습니다. 때문에 저주에서의 구원보다는 세상에서 힘 있는 자로 사는 인생에 더 목을 매는 것이고 자신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게 됩니다.

사 25:8절에 보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거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고 말합니다.

선지자는 다른 세상을 바라봅니다. 사망이 없는 구원의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그 세상을 이루실 것을 신뢰합니다. 이 같은 신뢰가 모든 형편과 상황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세상을 소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평강입니다. 염려와 걱정이 없는 심적 상태가 아니라 염려하고 걱정하게 되는 형편과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이루실 사망이 멸해진 나라

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소망하게 되는 것이 평강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께 하시면 좋은 환경에서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까? 그것은 헛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약속하신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사망이 없는 새로운 세상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백성을 저주에 심겨진 땅에서 건져내어 저주가 없는 생명의 세계에 있게 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세상은 노아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홍수가 세상을 덮고 방주만 물 위에 남았을 때 세상은 방주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방주가 필요하고 방주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심판과 무관하다고 생각하면 사망이 없는 생명의 세계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심판을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평강에 있게 합니다.

평강은 심적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여러분의 심적 상태로 평강을 확인하지 않아야 합니다. 걱정 근심이 없는 평안한 마음은 일시적인 심리 상태일 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강은 예수님이 이루신 생명의 세계로 만족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을 신뢰하게 하고 이 같은 신뢰가 우리의 심지를 견고하게 합니다. 비록 힘든 환경에 처해진다 해도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는 항변보다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생명의 세계를 소망하는 이것이 평강입니다.

부하면 부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동일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영광의 세계로 인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세계에 있게 하기 위해 지금 우리를 예수 안에 붙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평강입니다.

분랑대로의 축복

창 49:26-28

119강 2016. 10. 5일 설교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축복하는 것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축복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축복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야곱의 축복은 기존의 축복관을 무너뜨리면서 새로운 축복관을 정립시키는 시각에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3절에서 야곱은 스불론이 해변에 거주하고 그 경계가 시돈까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잇사

같은 양의 우리 사이에 끌어왔은 전장한 나귀라고 합니다. 나귀는 농사를 위해 필요한 짐승으로 연약한 존재를 뜻한다. 그렇게 보면 비록 전장하다 해도 결국 일을 많이 하는 나귀와 같은 역할을 할 뿐입니다. 이것이 잇사갈에 대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아끼를 내려 짐을 메고 압제 아래에서 섬기라”고

고 말합니다.

잇사갈의 축복에는 짐을 메고 압제 아래서 섬긴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다스리는 강한 족속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배를 받으며 순종해야 하는 약한 족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이해하는 축복이 아닙니다. 세상이 이해하는 축복은 연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강해지는 것으로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스블론은 해변에 거주하게 되고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차지할 분깃에 대한 내용이라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잇사갈에 비하면 더 나은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16절의 단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 같이 그의 백성을 삼판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속에서 그의 백성들을 재판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단 지파의 후손인 삼손이 20여 년 동안 사사로 지내면서 백성들을 재판하기도 했는데, 단지파의 축복의 성취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단에 대해서는 17절에서 **“단은 길성의 뱀이요 셋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고 말합니다. 독사는 작은 존재이지만 큰 소나 말도 죽일 수 있는 독을 가지고 있음을 생각하면 단이 비록 작은 족속이라 해도 큰 족속을 이기게 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9절에서는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고 말합니다. 적의 추격을 받지만 도리어 적의 뒤를 추격하게 된다는 것은 적의 공격을 잘 막아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20절에서는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쁨진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아셀이 기쁨지고 소산이 풍부한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서 나오는 것으로 왕의 수라상을 차립니다. 아셀에게서 나는 것이 왕의 양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납달리는 놀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발합니다. 놀인 암사슴은 자유롭게 뛰어다닙니다. 자유롭게 뛰어 다님으로 아름다운 소리, 즉 노래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무성한 가지로 그에게서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며 그 목자에 의해 팔에 힘이 있어 요셉의 활이 굳셀 것이라고 합니다.

27절에서는 **“베냐민은 물어뜯는 이라라 아참에는 때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고 말합니다.

이 역시 축복이라고 말하기에는 곤란한 내용입니다. 물어뜯는 이라라는 것은 자신보다 약한 존재에게 포악을 행하고 탈취하여 자기 것으로 차지하는 악한 기질을 빚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베냐민의 기질이 사울에게서 드러납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인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다윗을 향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라고 여인들이 노래하는 것을 듣고 다윗을 시기하여 마치 물어뜯으려고 달려드는 이리처럼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축복은 일관적이지 않습니다. 축복과 저주가 섞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28절에서는 **“이들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아람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아람이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고 합니다. 분량대로 축복하였다는 것은 잘하면 잘한 대로, 못하면 못한 대로 그에 맞게 축복하였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분

량대로의 축복을 사람이 행한 대로 그에 맞게 축복한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잘하면 잘한만큼 못하면 못한 만큼 축복이 다르다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천국에서의 상도 행함에 따라 다르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 은총의 선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격차가 있다는 발상 자체부터가 마귀적인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이 주신 선물에도 격차가 있다고 생각해야 좀 더 좋은 선물을 많이 받기 위해 열심을 낼 것이고, 타인보다 좋고 많은 것을 받음으로 자신을 자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야 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천국에는 상급의 차이가 없습니다. 모두가 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천국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심판을 받아야 처지에서 구원을 받음으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천국이라는 것을 포도원 품꾼 비유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열 두 지파입니다. 열 두 지파를 각기 분리해서 생각하면 누가 더 좋은 축복을 받았는가라는 비교가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열 두 지파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열 두 지파가 곧 이스라엘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관계 안에서는 한 지파라도 제외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관계와도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신자가 있지만 생활의 형편이 모두 동일하지 않습니다. 부요하다 해도 소유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자, 적은 자의 차이가 있게 되고, 가난하다 해도 역시 그들 안에서는 조금 덜 가난한 자와 많이 가난한 자의 차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을 생각하게 되면 많이 받은 자와 적게 받은 자로 나뉘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의 관계로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이기 때문에 몸의 관계에서는 나, 너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지체의 관계로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에 속한 지체가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역시 서로 다른 역할을 하면서 몸을 세우는 일에 도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량대로' 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 하는 도구로 세우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우신 것이지 열 두 지파 하나하나를 세우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열 두 지파는 각기 주어진 역할에 따라 행하고 살아가면서 인간의 죄악 됨을 드러내 보이기도 하고, 그러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시고 이끄시는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인간은 구원 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베냐민처럼 물어뜯는 이리의 기질을 가진 족속에 의해 나귀처럼 연약한 족속은 물어뜯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있는 악한 본성이며 구원될 수 없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 지파 속에 왕이 오시고 목자가 오심으로 구원될 수 없는 자가 구원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로 인해서 드러나고 증거 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국 구원될 수 없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에 의해 구원받으며 그 은혜를 알게 되는 것이 참된 축복입니다.

축복의 세계는 구원 될 수 없는 자가 구원되면서 자신이 어떻게 구원되었는가를 노래합니다.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 우리는 늘 죄를 드러낼 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분량입니다. 주어진 분량대로 살아가면서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는 그것이 모두에게 동일한 축복입니다.

교회소식

1. 은석교회와 같은 노회에 소속되어 있는 큰기쁨교회(울산)가 태풍 차바로 인해서 지하식당이 완전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복구를 위해서 얼마의 비용이 소요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힘써 도와야 할 상황입니다. 큰기쁨교회가 어려움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국

예배시간안내

예배모임	예배시간
주 일 오 전	11:00
주 일 오 후	2:30
수 요 일	7:30
주 일 학 교	1:00

주일오전에배

11:00 인도 : 신윤식 목사

독상기도 다 할 깨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 송 31장
교 독 문 79(요15장)
기 도 김중건 집사
찬 송 411장
성경봉독 겔 40:1-4

● 이상으로 본 성전(97장) ●

기 도 설 교 자
찬 송 85장
교회소식 이영민 장로
찬 송 2
축 도 설 교 자

다음주 기도 : 송홍인 집사

주일오후에배

14:30 인도 : 신윤식 목사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 송 135장
기 도 김영숙 집사
찬 송 212장
성경봉독 마 26:33-35

● 믿음과 신념(믿음85장) ●

기 도 설 교 자
찬 송 287장
주기도문 설 교 자

다음주 기도 : 정경순 집사

수요일예배

19:30 인도 : 신윤식 목사

창세기 강해 120강